

이십 년 만의 기도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에서 때문이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 다짐하던 에서였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오라 기별을 하겠다 했지만 지난 이십년 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야곱이 생각할 때, 에서는 아직도 야곱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창세기 32:1-2

두려움에 떠는 야곱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었다(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이 만남의 의미는 단순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로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고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도 여전히 에서가 무섭다. 야곱이 꾀를 낸다. 먼저 종들을 몇 명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고 반응을 살핀다. 그러나 사자들이 돌아와 하는 말은 야곱을 더욱 두렵게 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창세기 32:6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사백 명.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 거느린 사람들의 숫자가 삼백십팔 명이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느린 싸움 잘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랬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도 없고, 아버지의 유산도 없는 에서가 이십 년 만에 사백 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나를 죽이러 오는 것 아닌가?

야곱은 서둘러 무리를 둘로 나눈다. 종들은 물론이고 양이며 소,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그 사이에 남은 한 무리는 도망치려는 속셈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 창세기 32:7-8

그리고, 이제야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살려주세요, 에서가 무서워요. 벤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처음하는 기도다. 이십 년 만이다. 그동안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라반과 속고 속이며 한번도 기도하지 않던 야곱이 이제 기도한다. 그때 그러셨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네? 언제는 안지켜 주신 것처럼, 야곱이 이십 년 전에 들은 말씀을 들이대며 기도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 창세기 32:12